

# 대구주보

주님성탄대축일

2018. 12. 25.(다해) 제2139호



모든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애니메이션

2018. 12. 25. 주일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춥고 어두운 세상에 따스하고 밝은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영접하며 이 기쁨을 교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2천 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교회 는 매년 전례력으로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 해야 하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이사 9,1)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구세주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세주의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로 눈을 돌려 보면, 세상은 아직도 춥고 어둡습니다. 전쟁과 기아를 피해 자유세계를 찾아오는 난민은 지금도 생사의 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들은 난민의 어려움을 외면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하지만 앞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젊은 청년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고, 빈곤층의 노인들은 이 겨울을 나기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구세주 예수님께서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신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높은 것을 추구하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내 밑에 깔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높아지는 것이 우리 마음을 채워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부유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헐벗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하고 밝아졌지만, 우리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마태 18,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2011년 교구 설정 백주년을 보내고, 올해 성모당 봉헌 백주년을 지냈습니다. 초대 교구장이신 안세화 드망즈 주교님께서 성모님께 드렸던 원의와 정신이 성모당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모당 봉헌 백주년을 맞아 저는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이라는 사목 교서에서, 3년 동안 성모님께 대한 원의와 희망으로 특별히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회개의 해’를 보낸 우리는 내년을 ‘용서와 화해의 해’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하고 나의 마음을 더 비워 내야 합니다. 나도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느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아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를 처음으로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이들은 낮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루카 2,8) 어두운 밤에 양 떼를 지키느라 들판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가난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구세주 탄생을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나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루카 10,21)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루카 2,10)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며 이웃과 화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조 환 길



#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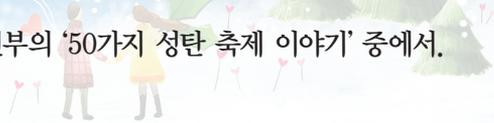
아이들에게는 성탄 선물잔치도 중요했다. 아름답게 꾸민 거실에서 성탄 종소리가 우리를 부르며, 아버지는 먼저 성탄 복음을 읽으셨고 우리는 ‘고요한 밤’을 부르며 탁자 위의 선물에 은밀한 눈길을 던졌다.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50년대의 선물은 확실히 오늘날과는 의미가 달랐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만족했고 쉽게 기뻐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선물 스트레스에 빠져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잘 보이려고 선물을 한다. 선물이 서로에게 의무가 되었다. 서로 자기 선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남이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사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 유쾌하지 않다. 어지간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툭툭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받은 선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역이다.

그래도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하나님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도 서로 뭔가를 선물하라는 뜻이다. 나 자신이 선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선물함으로써 표현한다. ‘선물하다’에 해당하는 독일어 ‘셴켄(schenken)’은 원래 ‘누구에게 마실 것을 주다’라는 뜻이다. 선물한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잠재울 뭔가를 따라 주는 것이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따라줄 것이 없다. 과자나 포도주, 옷이나 가재도구 같은 선물에 목마른 사람은 요즈음 드물다. 그런 것들은 죄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랑과 관심과 존중에는 우리 모두 목마르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선물을 갈망할 것이다. 선물에 내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그것이 그의 갈증을 달래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가정은 이미 가질 만큼 가지고 있어서 차라리 선물을 생략해 버리자는 데 의견을 모으곤 한다. 여기에는 물론 건전한 의도도 있지만 선물의 지나친 절제는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낸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징표이며, 생기 넘치는 관계의 표시이다. 그대가 어떤 모습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얼마나 그를 존중하는지,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전해도 좋겠다. 그런 성탄 편지에 통상적인 미사여구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껏 손수 그리거나 만든 것을 선물하면 어떨까. 그대의 선물이 사랑에 목마른 그의 갈증을 축일 수 있도록. **김문**

- 안셀름 그뤼브 신부의 ‘50가지 성탄 축제 이야기’ 중에서.





성탄절에 일어난 이야기

## 거미가 만든 거미줄 트리



옛날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 너무 가난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없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성탄 트리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땅콩과 작은 과일 열매만으로 초라한 트리를 꾸몄습니다.

성탄 전날, 집 앞 나무에 매달려 있던 거미는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다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감동한 거미는 자신의 거미줄로 초라한 트리를 밤새도록 치장하였습니다. 성탄절 아침 초라한 트리가 있던 자리에는 그 어떤 화려한 트리 못지않은 거미줄 트리가 햇빛에 반사되어 금·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

## 붉게 피어난 '포인세티아'

멕시코의 한 소년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지만, 가난했던 소년은 고작 꽃이 채 피지도 않은 포인세티아 나뭇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초라한 선물을 준비한 소년을 보고 친구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소년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옆에 기쁜 마음으로 놓았습니다.

마침내 성탄미사가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에서 붉은 색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에는 붉은 꽃을, 부활절에는 분홍색 꽃을 피우는 '포인세티아' (poinsettia)의 꽃말은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입니다. **🌸**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 제1독서 [ 이사 9,1-6 ]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제2독서 [ 티토 2,11-14 ]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 ▲ 복음 [ 루카 2,1-14 ]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 영성체송 [ 요한 1,14 ]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 주님 성탄 대축일

###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 제1독서 [ 이사 52,7-10 ]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 제2독서 [ 히브 1,1-6 ]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 ▲ 복음 [ 요한 1,1-18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 영성체송 [ 시편 98(97),3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뿐만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2.29(토) 14:00  
12.30(일) 10:00,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010)3015-1773

### 다락방 성소 모임

일시: 1.6(일) 11:00 미사~18:00  
장소: 툇핑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 메주고리에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17(목) 13:00~18:00  
장소: 교구청 대강당  
준비물: 미사봉헌  
주최: 성모솔숲마을

### 비움과 채움을 위한 젊은이 송년 피정

일시: 12.31(월)~1.1(화)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앓숨 분원  
대상: 만 35세 미만 미혼 남녀  
신청: (010)9286-2247

### 젊은이 성체초배의 밤 대피정

일시: 1.5(토) 15:00~19:00  
장소: 서울 가톨릭대학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강남) / 참가비: 1만원  
주최: 사랑이피는기도모임(AYG)  
문의: (02)6253-3373 / (010)8360-3700

### 제3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일시: 3.2(토)~3(일), 의왕시 아론의 집

강사: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두현자 주교  
주최: 미중남부성령봉사회, 하찬사  
문의: (010)8517-2306 / (010)6366-9356

## 교육 | 모집 | 기타

### 성경 맥안에서 거룩한 독서모임 모집

접수: 1.3(목)부터 선착순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 내  
문의: (010)2512-4627

### 가톨릭 요섭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 꽃동네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 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모집: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원서접수: 12.29(토)~2019.1.3(목)  
문의: (043)270-0100

### 2019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접수: 1.2(수) 9:00 선착순 마감  
대상: 초등부 5차, 중고등부 2차  
일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휴메이지  
문의: (062)373-0942 / (010)7412-0942

###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2.16(토) 이스라엘, 이탈리아  
경비: 448만원(11박 12일)  
일시: 2.26(화) 터키, 그리스  
경비: 395만원(12박 13일)  
문의: 1577-5006 / www.ctour.org

### 2019년 겨울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2.25(월)  
구약반: (월) 10:00, (목) 20:00  
신약반: (금) 10:00, (월) 20:00  
심화반: (월) 10:00, (수) 20:00  
문의: (010)4106-4627 / (010)6520-4627

### 50차 터키, 그리스 순례

일시: 2019.4.1(월)~13(토) 12박 13일  
비용: 420만원 / 문의: (02)6364-5648  
주최: 작은형제회이스라엘성지  
한국 대표부 / www.terrasanta.kr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645-9028

### 성모애덕의집 어르신 모집(무료양로원)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 487  
내용: 수녀원 운영, 매일미사, 1인 1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문의: (054)972-6219 / (010)8388-6219

###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결혼」리스토리**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0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선나 (교황학사 대구경북대원시영연구소장)  
010,6571,3385 | 053,586,3220  
정서 계대 동문 맞은편 국내-대구 임시 0003호  
www.LeeStory.kr 국제-대구 임시 0002호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산전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색을 띄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umou**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테파니아)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3인인병원**  
의사와 환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053)670-6000

**행사 | 모임**

**바느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2.27(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2018년 송년 감사미사 및 신년교례회**

송년 감사미사: 12.28(금) 21:00  
신년교례회: 1.4(금) 21: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10)9045-0191

**백혈병소아암환아돕기**

**2018 대구가곡사랑모임 송년음악회**

일시: 12.29(토) 15:00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전석초대)  
출연: 테너 김남수, 이선경 외  
문의: (010)2128-4771

**교육 | 모집**

**3기 살레시오 기자단 모집**

대상: 60세 이상 신자  
신청: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신청서 작성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마감: 1.20(일) / 첫 모임: 1.28(월)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19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뿌리 깊고 샘이 깊은 교육의 전당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예, 간호 포함 의료보건 특성화대학  
원서접수: 12.29(토)~2019.1.3(목)

입학상담: 850-2580

**2019 전기 2차 대가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2.31(월)~2019.1.8(화)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특수) / http://www.cu.ac.kr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실습)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마감: 12.31(월) / 문의: 660-5555~7  
http://conedu.cu.ac.kr

**프란치스카눔 발성법 5주년 워크샵**

일시: 1.5(토)~6(일) 미사있음  
장소: 일광 예수마리아성심수도원  
대상: 발성법 수강자 및 경험자  
문의: (010)5453-3127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겨울진학캠프**

일시: 1.8(화)~10(목)  
대상: 진학희망 학생(현 초6~중1)  
문의: (054)338-053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2월\_최동석(안드레아) 신부  
1월\_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 교수)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해외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주최: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문의: 423-3008(내선 2번)

**신나무골성지 봉사자 모집**

문의: (054)974-321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성가반주오르간, 난타·고전무용·장구,  
오카리나, 왕초보여행영어, 제대꽃꽂이,  
피아노, 발성법,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족·섬유공예, 가곡성가, 원어민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생활영어(화, 목), 바이올린(화)  
성가반주(수, 토)  
위치: 교대역 3번 출구 앞  
신청: 476-6211

**채용 | 안내**

**가톨릭신문사 직원 채용**

분야: 경력 기자 및 경력 편집디자인  
마감: 1.13(일) / 문의: (010)3527-9032  
http://www.catholictimes.org

**대구SOS어린이마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마을어머니 지원자 채용**

자격: 미혼 여성  
문의: 983-315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석주, 정보배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바깥고개에 위치

**백 신경외과 의원**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오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내거리 ☎ 053)628-4111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중풍/치매/재활/말기암/노인성질환  
**명덕효요양병원**  
· 24시간 간병서비스·경제적 치료비  
·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 실시  
· 특수 교수파열치료기도 도입  
병원장 변숙영(세라피나)  
명덕역-교대역 사이 ☎ 053)476-0000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아이 암을 이긴다!  
**청도 윤성요양병원**  
암 수술 후 재활·통증 치료 전문  
면역치료 14년 054)373-7400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010,4505,635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경원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